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제주 해녀학교의 학습 사례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조 인 애






# 제주 해녀학교의 학습 사례 연구

지도교수 이 은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조 인 애

조인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원장	박 병 익	
부위원장	이 은 주	
위원	김 남 수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해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배움을 얻는지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2018년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입학하여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가 설립 배경과 운영과정,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배움, 그리고 제주 해녀학교 지니는 환경교육적 의미를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자료 수집을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저널과 연구내용을 전사하고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곳을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속성에 맞게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의 물리적·관계적 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입학 동기를 확인하였고 둘째, 이론과 실습, 그리고 행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알아보았으며 셋째, 학생들의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환경교육 측면의 함의는 첫째, 제주 해녀학교는 제주해녀가 지닌 생태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둘째,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이 제주 해녀학교 졸업 후 정치생태학적 커먼즈로서 ‘제주 바당’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제주 해녀학교, 제주해녀, 생물문화다양성, 전통생태지식, 공동체, 커먼즈

**학 번 :** 2017-21111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 질문 .....	3
제 2 절 연구 방법 .....	4
1. 연구 과정과 사례 연구 .....	4
2. 자료수집 .....	5
3. 연구 참여자 .....	7
4. 자료 분석 .....	8
5. 연구 현장 .....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2
제 1 절 생물문화다양성 .....	12
제 2 절 전통생태지식 .....	15
제 3 절 제주해녀 .....	17
1. 제주해녀의 위기 .....	17
2.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 .....	20
3.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 .....	22
제 3 장 연구 결과 .....	25
제 1 절 배움의 발판 .....	25
1. 배움의 장 .....	25
2. 배움의 동기 .....	29
제 2 절 배움의 형성 .....	33
1. 교육과정 .....	33

2. 물질 .....	36
<b>제 3 절 배움의 결실 .....</b>	<b>39</b>
1. 해녀학교 학생들의 전통생태지식 .....	39
2. 해녀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	42
 <b>제 4 장 논의 및 결론 .....</b>	 <b>46</b>
<b>제 1 절 함의 .....</b>	<b>46</b>
1. 제주 해녀학교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의 가치 .....	46
2. 정치생태학적 커먼즈 ‘제주 바당’ .....	49
<b>제 2 절 결론 .....</b>	<b>52</b>
 <b>참고문헌 .....</b>	 <b>55</b>
<b>부록 .....</b>	<b>60</b>
<b>Abstract .....</b>	<b>65</b>



## 표 목 차

[표 1]	.....	5
[표 2]	.....	7
[표 3]	.....	11
[표 4]	.....	14
[표 5]	.....	16
[표 6]	.....	18
[표 7]	.....	19
[표 8]	.....	20
[표 9]	.....	21
[표 10]	.....	28
[표 11]	.....	30
[표 12]	.....	33
[표 13]	.....	41
[표 14]	.....	43
[표 15]	.....	43
[표 16]	.....	51

## 그 립 목 차

[그림 1]	.....	13
[그림 2]	.....	15
[그림 3]	.....	24
[그림 4]	.....	25
[그림 5]	.....	28
[그림 6]	.....	34
[그림 7]	.....	37
[그림 8]	.....	44
[그림 9]	.....	47
[그림 10]	.....	47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문제제기

제주해녀가 2016년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 회의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심을 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제주해녀의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할 수 있는 점”, “제주해녀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될 수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정민희와 이웅규, 2017). 이는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시한 무형문화유산 범위 중 “생태학적 전통 지혜”, “토착적 지식”, 그리고 “지역의 동식물상에 대한 지식”이 잘 부합됨(유철인, 2012)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계에서도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철인(2012)은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도구 없이 물질을 하는 개인수준과 마을 어촌계와 같은 공동체 수준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으며, 김권호와 권상철(2016)은 제주해녀 공동체에서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활용하여, 김민호(2017)는 제주해녀가 가진 토착지식의 ‘오래된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김지수 외(2016)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제주해녀 주제 탐구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실천하였다. 또한 고은설과 정상철(2018)은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지

속가능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 제주해녀는 점점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해녀의 고령화 문제와 신규 해녀를 충원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등은 제주해녀 보존에 큰 위협이 되었고(고은솔과 정상철, 2018) 결국 제주해녀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과 기술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모아져 ‘해녀학교’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고창훈, 2005; 김상미와 황경수, 2012) 2008년 제주시 한림 한수풀 해녀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5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좁녀마을이 개교하여 제주에서 총 2개의 해녀학교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해녀가 소라 채집을 하지 않는 5월부터 8월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제주해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제주 해녀학교의 모습은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흥미로운 소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녀학교를 주제로 잡은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를 연구 주제로 연구자가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에 직접 입학하여 해녀학교 생활 세계에 직접 들어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 해녀학교에서 직접 제주 해녀학교를 체험하고, 해녀 학교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제주 해녀학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떠한 배움을 얻는지 알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구성한다.

## 2. 연구 질문

1. 제주 해녀학교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2.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이 해녀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은 해녀학교를 통해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3. 제주 해녀학교는 어떤 환경교육적 함의를 가지는가?

## 제 2 절 연구방법

### 1. 연구 과정과 사례 연구

이 연구는 연구자가 2018년 5월 제주 한림읍에 위치한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입학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례 연구의 특성이 연구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는 첫째,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bounded system)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을 탐색하고(Creswell, 1998) 둘째,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구성하며 이 모든 것들이 전체로 볼 때에 하나의 사례가 되며(Denzin & Lincoln, 2011; 방운영, 2019), 셋째, 사건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과 같은 특징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당시 시대적 맥락 안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곽영순, 2014; 방운영, 2019).

우선, 이 연구는 ‘제11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이라는 연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계를 가진 사례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여름이라는 ‘특정 시간’과 한림읍에 위치한 한수풀 해녀학교라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이론, 실기 수업들과 행사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발생한 해녀학교라는 사례 그 자체를 바라본다. 더불어 제주 해녀학교가 생겨났던 이유인 제주 해녀의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제주해녀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1년 동안 제주 해녀학교가 지속되어 왔던 맥락 속에서 해녀학교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사례 연구로 연구 문제를 접근한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한수풀 제주 해녀학교에 원서를 지원하는 2018년 4월 26일부터 마지막 전화면담인 2019년 6월까지 약 1년의 연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참여관찰은 2018년 5월 26일 입학식부터 9월 1일 졸업식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5시간씩 실시했고 이때 저널쓰기도 함께 이루어졌다. Spradley(1980)는 연구 참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정도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눈 다섯 가지 참여 유형을 나누었는데(표 1), 이 중 ‘능동적(Active) 참여자’로 사례 연구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Nelson(1969)이 사냥의 기술을 기록하기 위해 문화기술학자 역시 직접 사냥을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듯, 해녀학교에서 일어나는 해녀문화, 물질 기술 등 모든 학습을 직접 배우고 익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해녀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총체적인 문화 규칙을 충실히 배우는 것을(Spradley, 1980) 목표로 하였다.

<표 1> Spradley(1980)의 참여 종류

개입(Involvement) 정도	참여 종류
높음	완전(Complete)
	능동적(Active)
	보통(Moderate)
낮음	수동적(Passive)
(전혀 개입하지 않음)	비참여(Nonparticipation)

출처: Spradley, 1980

Spradley(1980)는 완전 참여하여 상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회적 상황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화적 규칙을 더 많이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Gold(1958) 또한 연구 제보자들과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연구자로서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경우 관찰자로서 참여자가 난해한 상황에 빠



지기도 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참여관찰 중 객관적인 연구자 시선을 가지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였다.

둘째, 참여관찰 중 심층면담은 해녀학교 제11기 입문 양성반 과정 졸업생 중 7명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녀학교 졸업식을 앞둔 8월 말에 1차 면담이 시행되었다. 이때 입학 동기, 입학 후 가장 인상적인 점, 제주해녀 등 주요 질문을 연구자가 미리 준비하고 다른 질문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구조화 면담방식을 채택하였다. 면담 장소는 해녀학교 이론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이나 학교 앞 바당<sup>1)</sup>과 같이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실시하였고 면담한 날짜에 바로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차 면담은 2019년 2월, 1차 면담자 중 선별적으로 2명에게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1차 면담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질문을 더하였으며 면담자의 집이나 차 안을 면담장소로 정하여 보다 편안한 분위기 형성을 주도하였고 1차와 동일하게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내용을 전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면담을 통해 내용을 추가적으로 녹음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제주 한수풀해녀학교에서 만든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해녀체험장 운영 일지(2007~2015) 등의 문서 자료를 참고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범위를 넓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학 연구센터 주최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보강하였다.

---

1) 바당은 ‘바다’를 이르는 제주도의 사투리로 제주 해녀학교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역시 바다 대신 바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2018년도 한수폴 제주 해녀학교 제11기 입문 양성반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의 학생이다(표 2).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표본추출 전략을 사용하였다. 우선, 해녀학교 집단의 내부인 위치에 있어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한수폴 제주 해녀학교 제11기 사무장과 연락을 하였다. 논문 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고 어떠한 맥락에서 연구를 하면 좋은지 혹은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 특성

이름	국적	성별	나이	거주지	이주정착기간
A	한국	여	30대	도내	22년
B	한국	여	30대	도내	1년
C	한국	여	40대	도내	2년
D	한국	여	40대	도내	1년 6개월
E	한국	여	40대	도외	.
F	중국	여	20대	도내	3년
G	중국	여	30대	도내	7년

해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를 확정하기 전 모든 사람들과 라포 형성을 하는 Fetterman(2009)의 큰 그물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연구 목적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Creswell, 1998) 논문을 쓰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연구 중에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나 질적 사례 연구를 한 조미성(2016)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 관계 형성으로 연구자로서의 시각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를 하는 중임을 수시로 알렸다.

55명의 입학생 중에서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대부분 연구자와 같은 조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연구자와 자연스럽게 라포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친밀감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에 대한 부담감과 연구자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둘째, 국적과 나이, 거주지, 그리고 이주 정착기간이 다양하였다. 외국인 2명을 포함하였고 나이대가 20~40대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2년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어 일정 연령대나 국적, 이주 정착기간에 편향된 연구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radley(1980)의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그리고 주제 분석 등을 참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영역분석은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관찰함으로써 문화적 의미(cultural meaning)를 발견하는 것이고 분류분석은 한 영역 내에서의 포함 용어간의 관계를 찾는 것을 뜻한다. 또한 성분분석은 문화적 영역과 관련된 속성을 대조점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찾는 것이고 주제 분석은 문화 부분들의 관계와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참여관찰을 하면서 기록한 연구저널과 연구 참여자들 녹음 내용을 연구 맥락 그대로 전사했다. 2단계에서 기록된 연구저널과 전사된 녹음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 있는 곳을 밑줄을 그리거나 볼드체로 따로 표시를 했다. 3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끼리 구분하고 분류하며 대조점을 이용하여 속성을 분석했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분류한 속성을 범주화하고 비슷한 부분을 영역으로 분류했다.

분석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제 분석을 통해 ‘입학 동기’, ‘물질 기술’, ‘직업 해녀’, ‘소속감 형성’, ‘졸업생들 간의 관계’, ‘해녀학교의 아쉬운 점’, ‘제주 바다’, ‘해양 레저 스포츠’ 등 총 15개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유목화하고 주제별로 다시 구조화하여 제주 해녀학교 배움의 발판으로 ‘배움의 장’과 ‘배움의 동기’ 두 가지 대주제를, 배움의 형성으로 ‘교육과정’과 ‘물질’ 대주제를, 그리고 배움의 결실에서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라는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 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초안서가 작성된 후, 연구 참여자 중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5. 연구현장

제주해녀 학교는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 간접 체험보다 효과적인 직접체험을 제공한다는 점(김민호, 2017)과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도외 시민들까지 제주해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에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제주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로 총 두 개의 해녀학교가 있다. 이 두 개의 학교는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입학생들을 받고 있다.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제주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의 2019년 모집과정을 비교하면 <표 3>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입문 양성반과 직업 양성반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매해 도민, 도외, 그리고 외국인 포함 약 50명의 졸업생을 배출

한다(한수풀 해녀학교 홈페이지). 특이하게 2017년부터 해녀 입문 양성반과 해녀 취업 양성반을 나누어 입학생들을 받는데, 취업 양성반은 모집 인원이 입문 양성반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을 하고 수업 시간은 양성반의 두 배이다. 또한 만 50세 미만인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입문 양성반에 비해 취업 양성반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신청자격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취업 양성반에서 추가된 조건들은 모두 해녀가 되기 위한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보다 전문적인 직업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 법환동에 위치한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는 2015년에 개교하였으며 매년 약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법환줌녀마을해녀학교 홈페이지). 개강시기와 수업 총 시수가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비슷하지만 졸업생 중 인턴해당자에게 9월에서 11월 사이 서귀포시 어촌계에서 총 8회 인턴과정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한수풀 해녀학교의 취업 양성반과 성격이 유사하며 전문적인 직업해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제주 해녀학교 중 입학기간과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에 제주 해녀학교 학생으로 입학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제주 해녀학교의 모습과 맥락을 연구하였다.

<표 3>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와 제주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 모집과정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제주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	취업 양성반	
모집 인원	50명	20명	30명
기간	2019. 5.10(입학식) 5. 11~ 8. 24 매주 토요일	2019. 5.10(입학식) 5.11~ 8.25 매주 토,일요일	5. 18.~7.21. 매주 토,일요일
신청 자격	도내외 심신 건강하고 해녀에 관심 있는 만50세 미만 성인	해녀가 되고자 하는 만 50세 미만 여성으로 주소지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어 촌계장 및 잠수회장이 추천한자	- 해녀를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만 60세 미만의 여 성 - 해녀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가산점 대상자 및 고려사항	- 제주 한수풀 해녀 학교 재능기부자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 도내 해녀(잠수어업인)승계 예정인 여성 - 도내 어촌계원 중 잠수회 가입예정인 여성 - 도내 어촌계원 가입 예정자로서 어촌마을 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한 여성 -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과정을 졸업하 고 도내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자한 여 성	- 어촌계추천자 (어촌계에 가입한다는 조 건) - 연고지 - 연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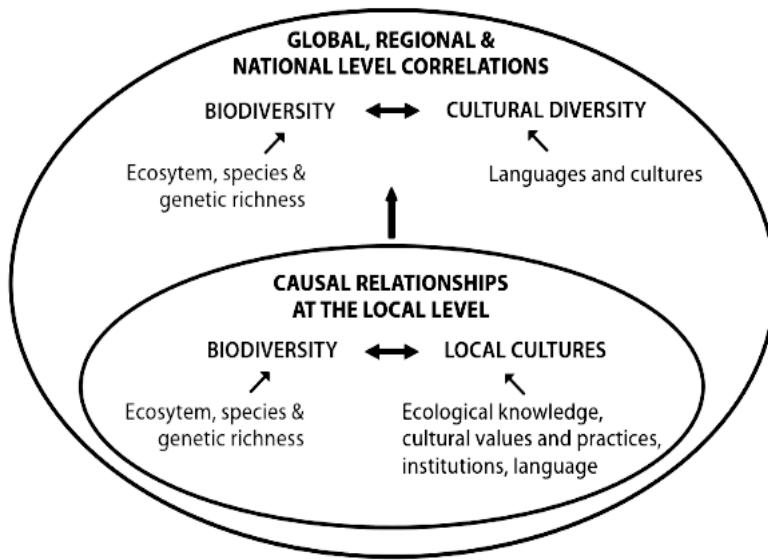
출처: 한수풀 해녀학교 홈페이지, 법환 줌녀마을 해녀학교 홈페이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생물문화다양성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과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Mascia et al, 2003) 그 결과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Cocks, 2006). 즉, 자연과 인간은 상호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해야한다는 의미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 생겨났다(홍선기, 2013; Maffi, 2001)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문화다양성은 유전자, 생물종,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성되는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언어,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홍선기, 2013).

더불어, Maffi(2010)는 생물문화다양성을 공진화(coevolution)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사회·생태학적 복잡적응체계(a complex socio-ecological adaptation system)내에서 상호진화”하는 성격으로 생물문화다양성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첫째, 생명 다양성은 동·식물, 서식지,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언어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서로 분리되거나 평행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지역수준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함께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지구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 1>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구적(global)/지역적(regional)/국가적(national) 연관성과  
지역적(local) 수준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인과관계(Maffi and Woodly, 2010)

벨렘선언문(Declaration of Belém, 1988)은 이 둘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지역 토착민들에 주목한다(Posey, 1988). <표 4>와 같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불가분한 관계(inextricable link)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토착민들의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를 보존하는 여러 전략과 방법들을 포함하였다. 벨렘선언문에 지역 토착민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수록된 것처럼 생물문화다양성은 지역 토착민들의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진화하는 생물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제주 해녀학교를 바라보고 이를 위해 제주해녀와 해녀학교 학생들의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 의식을 논하고자 한다.



#### <표 4>벨렘 선언

##### 상황

- 열대 우림 등 취약한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다.
- 동·식물 종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 전 세계적으로 지역 토착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
- 사람들의 경제, 농업 및 건강 상태는 이러한 자원에 의존한다.
- 토착주민들은 세계 유전자원의 99 퍼센트의 청지기(steward)역할을 한다.
-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inextricable link)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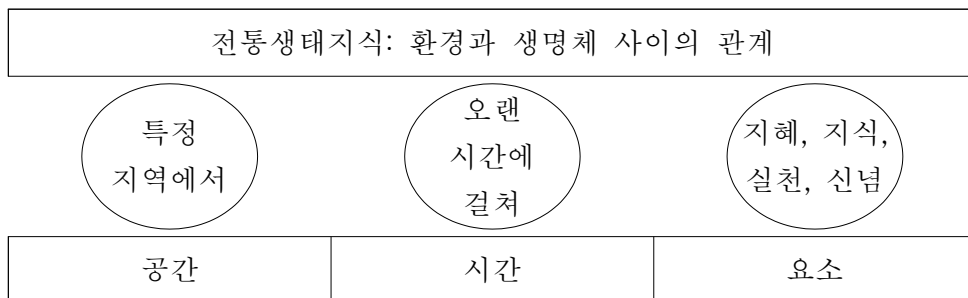
#####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및 조치

1. 민족 생물학의 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한다.
2. 토착 전문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로부터 모든 프로그램, 자원 및 환경에 대해 자문을 받는다.
3.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은 인정되고 보장된다.
4. 토착민들의 지식과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 이들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5. 인간 복지를 위한 민족생물학적 지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 모든 의료 프로그램에는 토착 치료사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이 집단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건강 진료원의 설립을 포함한다.
7. 민족생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토착어로 토착민들에게 제공한다.
8. 보존, 관리 및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토착민들과 정보 교환이 촉진되어야한다.

출처: Posey et al, (1996)

## 제 2 절 전통생태지식

전통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은 특정 지역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환경과 생명체의 관계에 대한 지혜, 실천, 신념 등을 말한다(남미리, 2014). 특정 지역의 맥락이나 환경에 존재하여 어떤 사건, 관계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적 지식을 일컬으며, 예를 들어 소작농의 토양에 대한 지식부터 토착민들의 지역적 식생에 대한 지식까지 넓은 범위의 인간이 행하는 노력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Fischer, 2000). 전통생태지식은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이나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 토착기술지식(indigenous technical knowledge), 지역지식(local knowledge)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슷하게 정의되고 있다(김현과 송미장, 2011; 김억수와 이재영, 2016).



<그림 2> 전통생태지식 개념화(남미리, 2014)

<표 5>에서 알 수 있듯 전통생태지식은 전문적으로 형식화되고 보편화된 과학 지식과 대비되어 왔는데(Brush, 1996) 과학 지식이 “문명화된” 우등한 지식으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은 “문명화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지식으로 상대적인 무시를 당해왔다(Fischer, 2000).

그러나 1993년 리우회의 결과로 맺어진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전통지식을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이라고 정

의하며(김현과 송미장, 2011) 전통생태지식에 대한 관심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두되었다(김억수와 이재영, 2016).

이렇듯 그동안 중심이 되었던 보편화된 과학지식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토착지식이나 다양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지역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전통생태지식은 지역공동체의 생존,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그리고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다루는 데에 적응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김억수와 이재영, 2016)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표 5> 전통지식체계와 서구과학체계의 비교

전통지식체계	서구과학체계
- 자연세계의 모든 부분은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생명은 서로 의존함.	-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를 조절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는 우월한 존재로 간주됨.
- 지식은 대부분 구전됨.	- 지식은 대부분 문장으로 전달됨.
- 지식은 관찰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개발됨.	- 지식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배경으로부터 먼 위치에서 밝혀짐.
- 특별한 지식의 특성과 상태는 정신적인 신념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동으로 제안됨.	- 특별한 지식의 특성과 상태는 동료들의 견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개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제안됨.

출처: (김현과 송미장, 2011; 김억수와 이재영 2016) 수정

## 제 3 절 제주해녀

### 1. 제주해녀의 위기

제주해녀 고령화와 신규 해녀 부족은 제주해녀문화를 사회적으로 지속하는 데에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고은솔과 정상철, 2018). 1970년 14,143명이던 해녀 수는 2016년 기준 약 만 명이 줄어든 4,0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남아있는 4,005명 가운데 50대 이상 해녀는 98.5%, 70대 이상 해녀는 무려 57.3%나 차지하고 있다(고은솔과 정상철, 2018).

안나 힐티(2011)는 해녀 문화 쇠퇴 이유를 첫째, 세대 간 직업 해녀 전승 부족으로 본다. 해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어렵고 위험하며 해녀가 되는 길 이외의 다른 대안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녀 자신의 딸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다른 직업을 찾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녀들의 해산물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서 찾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산물의 가용성이 감소되어 해녀 직업은 과거에 비해 수익률이 저하되었다. 특히 생태계 교란으로 보이는 유절서회조류의 다량발생은 해조류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소라, 전복 등 유용패류의 감소로 이어졌다(장대수, 2011). 마지막으로 해녀 문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인해 해녀문화가 쇠퇴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인들은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제주해녀는 제주도민에게는 오로지 제주를 추억하는 향수로만 여겨지고 외부인은 호기심으로만 제주해녀를 바라보는 실정이다.

<표 6> 연도별 제주해녀 수와 연령대 별 구성 비율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
해녀 수 (명)	14,143	7,800	6,827	5,789	4,995	4,005
30세 미만	4,427 (31.3%)	765 (9.8%)	294 (4.3%)	3 (0.1%)		
30~49세	7,764 (54.9%)	4,737 (60.7%)	3,017 (44.2%)	1,282 (22.1%)	125 (2.5%)	58 (1.5%)
50~59세						403 (10.1%)
60~69세	1,952 (13.8%)	2,302 (29.8%)	3,515 (51.5%)	4,504 (77.8%)	4,923 (97.5%)	1,246 (31.1%)
70세 이상						2,298 (57.3%)

출처: 고은솔과 정상철(2018)

이러한 제주해녀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표 7>과 같은 전략을 구상하였다(송원섭, 2018). 그 중 해녀학교 운영 지원은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과제에 모두 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해녀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표 7> 제주해녀어업시스템 보전·관리 비전과 전략

3대 과제	4대 전략	단기실천과제 (2016-2018)	중장기실천과제 (2019-2025)
1. 실천 프로그램 시행	1. 제주 해녀어 업·유산 의 체계 적 관리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생산성 향상 - 해녀사전 발간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생 산성 향상 지원 확대 -해녀어업유산경관 관리계 획 수립 -<해녀유산마을>조성 운 영
	2. 제주 해녀어 업 육성 정책 발 굴 및 지속적 시행	-해녀안전장비, 해녀 복 지원 등 <b>-해녀학교 운영지원</b> -해녀 소득보전 및 신규해녀 육성	<b>-해녀학교 운영지원 확대</b> -해녀어업인 안전사고매뉴 얼 작성보급 -해녀어업 생산기반 시설 정비 지원 -해녀 복지 시책 개발
2. 시스 템 관리 체계 구 축	3. 제주 해녀어 업 관리 조직 구 축	-해녀협회 설립 -해녀어업유산지킴이 활동과 주민교육	-어촌리더십 향상 프로그 램 운영 -전국 해녀조직 구성
3. 세계 적 가치 인정을 통한 보 편적인 식 확산	4. 국가 중요어 업 유산 인 제주 해녀어 업의 글 로벌 흥 보 전개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사업 -한국해녀어업 전국 대회개최	-한·일 해녀 어업문화 교 류 -해녀연구 포럼 운영

출처: 송원섭(2018)

## 2.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

제주해녀들은 경험으로 전통생태지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온전히 맨 몸으로 숨을 참는 경험적 노하우가 요구되고 공동체 수준에서는 마을 어촌계 중심으로 금채기, 채취물 크기, 그리고 잠수장비 규제 등을 정하는 생태적 지식을 활용한다(유철인, 2012; 김민호, 2017).

안미정(2008)에 따르면 제주해녀들은 ‘자연스럽게’ 물놀이를 통해 물질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대부분의 물질 도구들을 해녀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몸을 바다 속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연철을 허리에 매고 안경에 서리가 끼지 않도록 쑥을 문지른다. 테왁<sup>2)</sup>은 해녀들이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도록 도와주며 바다에 그물을 띄워주고 그 안에 수확한 해산물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에서 몸을 적응하는 노하우와 조류의 흐름과 세기, 해저의 지형지도, 그리고 해산물의 서식처 등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전통생태지식이다(안미정, 2007).

<표 8> 물질 도구의 종류

구분	명칭	용도	구입방법	보관장소
채취 도구	테왁	부표	제작	공동창고
	조락	작은 조개용 그물자리	제작	
	망사리	해산물을 담는 그물자리	제작	
	비창	전복 채취 도구	철물점	
	칼꾸리	각종 채취 도구	철물점	
착용 도구	작업복	고무 옷, 고무손장갑	주문 제작	개별 소지
		속옷, 스타킹, 양말, 면장갑, 팔띠, 덧수건 등	제작, 가게	
	물안경	수중 안경	제작, 가게	
	오리발	입수와 이동	제작, 가게	

2)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것이다. 보통 위는 주황색 비닐로 덮인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바다에 뜨고 밑에는 그물망은 연결하여 이곳에 해녀들이 바다에서 딴 물건들을 집어넣는다.

	연철	납덩이	제작, 가게	
	슬리퍼	작업 전후 이동시	가게	

출처: 안미정, 2008

특히 제주해녀들이 가진 대표적인 전통생태지식으로는 금채 기간이 있다. 금채는 해산물의 번식과 생장을 고려하여 채취를 금하는 것을 말하고(민윤숙, 2010), 허채는 해산물의 채취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해녀들은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해안마다 금채기간을 지정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고 있다.

<표 9> 고성·신양리 해녀의 계절별 해산물 채취 및 금채 기간

종류	채취기	금채기	비고	입어 금지
전복	9월 15일~5월 말	여름산란기 (7,8월)에 금채	허채 따로 없음	6월 말 일 ~ 9월 15일까지
소라	10월~6월			
성게	11월~6월		7~10월말까지 금채	
숨	9월 15~2월 말			
오분자기	9월 말~6월 말			
문어	9월말~6월말			
해삼	10월~4월말		11월에 본격 채취	
미역	12월~4월말		허채 따로 없음	
툰	2월	정월 보름 기준	어촌계 공동 채취	

출처: 민윤숙(2010)



### 3.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

#### 1) 규약과 관습

제주해녀들은 해녀작업과 관련된 사항을 지키고 공동체 질서회복을 위해 규약이나 관습을 지정한다(좌혜경과 강정식, 2014). 그 예로 잠수회는 신규 해녀 교육, 어장 이용에 대한 규칙, 물질 훈련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녀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규약과 관습은 법적인 구속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해녀들 간의 협동과 배려의 정신도 잘 드러나 있다. 지역별로 바다어장과 관한 규약, 관습을 약간의 차이를 띠며 이를 명시함으로써 채취규정, 금채, 입어권, 어장청소 등 지속가능한 바다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시 한림읍 한림수협인 경우에는 1968년 잠수협회가 출범하였다. 잠수의 공동이익 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어업 생산력 증강 도모 등의 목적 아래 어업권 취득과 발전, 잠수회 공동시설, 잠수자금 분배 및 배정 등에 대한 규약이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리 잠수회는 수자원보호와 정화사업과 상호간 이해와 우의 증진 목적 아래 선거권, 피선거권, 운영 참여 권리, 그리고 불법 어업방지 및 수산물 판매 등의 상세한 규약이 제시되어 있다(해녀박물관, 2009).

## 2) 불턱

불턱은 해녀들의 쉼터이다. 물질하기 전 불턱에서 작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물질 후에 젖은 몸을 녹이는 장소로 이용한다. 해녀들은 하나의 불턱을 두고 당번을 정하여 미리 불을 피우고 여러 먹을거리를 나누며 물질 경험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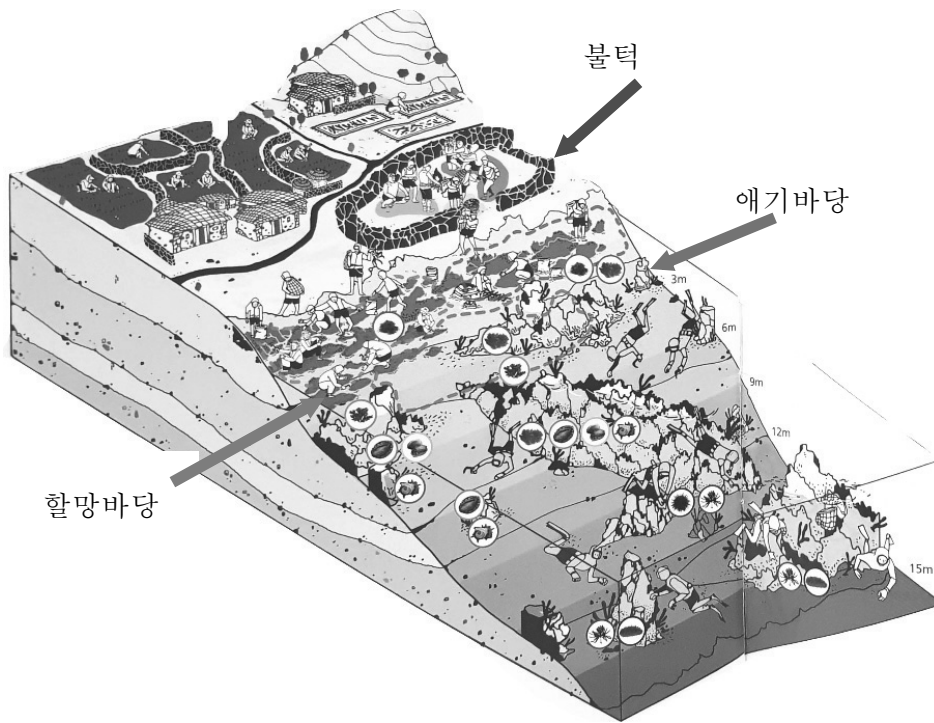
민윤숙(2011)에 따르면 1990년대 탈의장이 설립되면서 불턱의 사용은 점점 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이제는 불턱 대신 탈의장이 그 불턱의 상징성을 대신하고 있다. 탈의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물질 도구를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많은 해녀들이 모여 후배 해녀들에게 여러 물질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던 때와 달리 최근에는 정보를 교류하는 규모가 더 작아졌으며 신규 해녀가 줄어들어 후배에게 전통 생태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불턱은 돌담으로 쌓고 불을 피우는 장소적 의미 대신 물질작업을 준비하거나 물질기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상징적 의미로 서술한다.

## 3) 공동체 의식

해녀들을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 세 집단으로 나눈다. 상군은 2분 이상 숨 길이에 15m 이상 잠수를 하며 중군은 8~10m, 그리고 하군은 5~7m 깊이에서 작업을 한다(박준희 외, 2018). 이러한 서열화는 해녀 공동체 아래에서 비공식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 기량에 따라 바당 역시 나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애기바당’은 물질이 서툰 초보 해녀들이 물질을 배우는 곳이고 이에 반해 ‘할망바당’은 고령 해녀들이 쉽게 물질을 할 수 있는 비교적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이렇듯 해녀 공동체 사회는 초보 해녀나 고령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질 장소를 따로 설정하여 각각 채취물에 대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해녀 공동체 문화(송원섭, 2018)

## 제 3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배움의 발판

#### 1. 배움의 장

##### 1) 물리적 장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623-6에 위치한다. 크게 실내교육장(해녀 학교 2층 168.70m<sup>2</sup>)과 귀덕2리 포구인 실외교육장으로 구분되지만 이를 더 세분화하여 수업에 활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① 이론 ② 실기 ③ 불턱 (해녀학교 학생 불턱/ 해녀선생님들 불턱) ④ 행사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출처: 카카오 맵

<그림 4> 제주 해녀학교의 물리적 장

### ① 이론 (168.70m<sup>2</sup>)

해녀학교 건물 2층에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매주 다른 해녀 관련 주제를 다룬다. 입학식, 졸업식 포함 15주 수업 중 ‘해녀이야기’, ‘잠수이론’, ‘해녀 질병과 원인’ 등 총 8주 이론 수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기술관련 1강좌, 제주해녀 관련 6강좌, 그리고 제주어 관련 1강좌 등 다루는 범위가 다소 넓고 물질기술보다는 제주해녀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② 실기 (1,152,000m<sup>2</sup>)

귀덕2리 어촌계에 속한 양식장인 학교 앞 바당에서 총 15주 동안 12번에 걸쳐 실기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교 앞 바당은 귀덕 2 어촌계에서 어업면허를 받아 관리하는 마을 어장이다.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과 귀덕 2리의 경계부터 귀덕 2리와 귀덕1리 경계까지가 그 범위이다. 실기 수업을 하기 전 단체 준비체조를 하고 해녀삼춘 당 1개의 조가 모여 실기 수업을 받고 물질 기술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잠수회장에게 특별훈련을 따로 받기도 하였다.

### ③ 불턱 (㉠ 해녀선생님들 불턱/ ㉡ 학생 불턱)

불턱이란 해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로써 해녀 공동체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미선과 좌혜경, 2009).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에는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는 없지만 해녀 공동체를 이끄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장소가 있다. 또한 해녀삼춘들의 불턱과 해녀학교 학생들이 불턱이 구별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비교적 샤워·탈의실과 거리가 가까운 해녀삼춘들의 불턱에서 해녀삼춘들은 간식을 먹거나 제철 나물 등을 말리며 정보를 소통한다. 이에 반해 학교 앞 바당과 가까운 학생 불턱은 주로 학생들이 물질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간식이나 실기

수업 중 수확한 해산물들을 나누어 먹는 장으로 형성되었다.

그 외: ④ 행사장, /샤워·탈의실(228m<sup>2</sup>) / ⑤ 귀덕2리 사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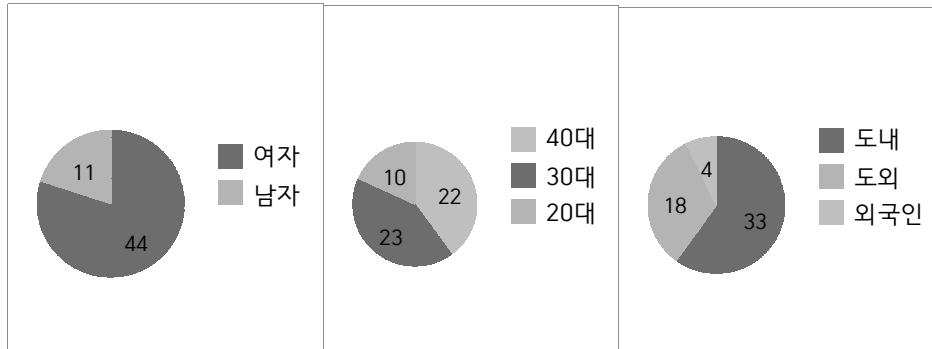
해녀축제 때 물질도구를 들고 있는 5명의 해녀상을 중심으로 행사장이 활용되었다. 특히 해녀상은 해녀 패션쇼를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는 등 해녀 무대로 이루어졌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제주해녀와 관련된 장터를 마련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귀덕 2리 사무소에서는 입학식과 졸업식 등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사가 끝나면 해녀삼춘들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귀덕 2리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국수나 제주 돼지고기 등 음식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 2) 관계적 장

한수풀 해녀학교 제11기 입문반은 여자 44명, 남자 11명으로 총 55명이다. 연령대는 40대(23명), 30대(22명), 그리고 20대(10명)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별로 도내(33명), 도외(18명), 그리고 외국인(4명) 순으로 입학자 수가 많았다. 흥미롭게도 주말마다 제주행 왕복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다소 큰 도외출신들이 약 33%나 차지하고 약 58%의 2·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고령화와 해녀고유의 문화 소멸 등 기존 제주해녀가 가지는 문제점이 화두 되어지는 것과 상반되게 젊은 육지인들이 제주 해녀학교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녀학교는 크게 관리자-해녀선생님-학생으로 구분된다. 교장은 학교 전체를 총괄하며 사무관은 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간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림 5> 제11기 한수폴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 인적사항

삼춘<sup>3)</sup>이라고 불리는 해녀 선생님들은 귀덕2리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들이며 약 30명의 해녀들이 매 주마다 돌아가며 선생님 역할을 한다. 5개의 조는 각각 남자 2~3명, 여자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그리고 조장 5명의 임원진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가장 많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실기 수업을 통해 조별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녀학교 축제나 비양도 소풍 등 큰 행사를 통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표 10> 해녀학교 관계도

구분	관계도														
관리자 (3명)	<table><tr><td>교장</td><td colspan="2">사무관</td><td colspan="2">간사</td></tr></table>					교장	사무관		간사						
교장	사무관		간사												
해녀삼춘 (약 30명)	<table><tr><td>해녀</td><td>해녀</td><td>해녀</td><td>해녀</td><td>해녀</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해녀	해녀	해녀	해녀	해녀	↓	↓	↓	↓	↓
해녀	해녀	해녀	해녀	해녀											
↓	↓	↓	↓	↓											
학생 (55명)	<table><tr><td>1조 (11명)</td><td>2조 (11명)</td><td>3조 (11명)</td><td>4조 (11명)</td><td>5조 (11명)</td></tr></table>					1조 (11명)	2조 (11명)	3조 (11명)	4조 (11명)	5조 (11명)					
1조 (11명)	2조 (11명)	3조 (11명)	4조 (11명)	5조 (11명)											

3) 제주 사투리인 '삼춘'은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삼춘'이라고 불리고 부름으로써 서로간의 친근감을 표현한다.

## 2. 배움의 동기

### 1) 직업 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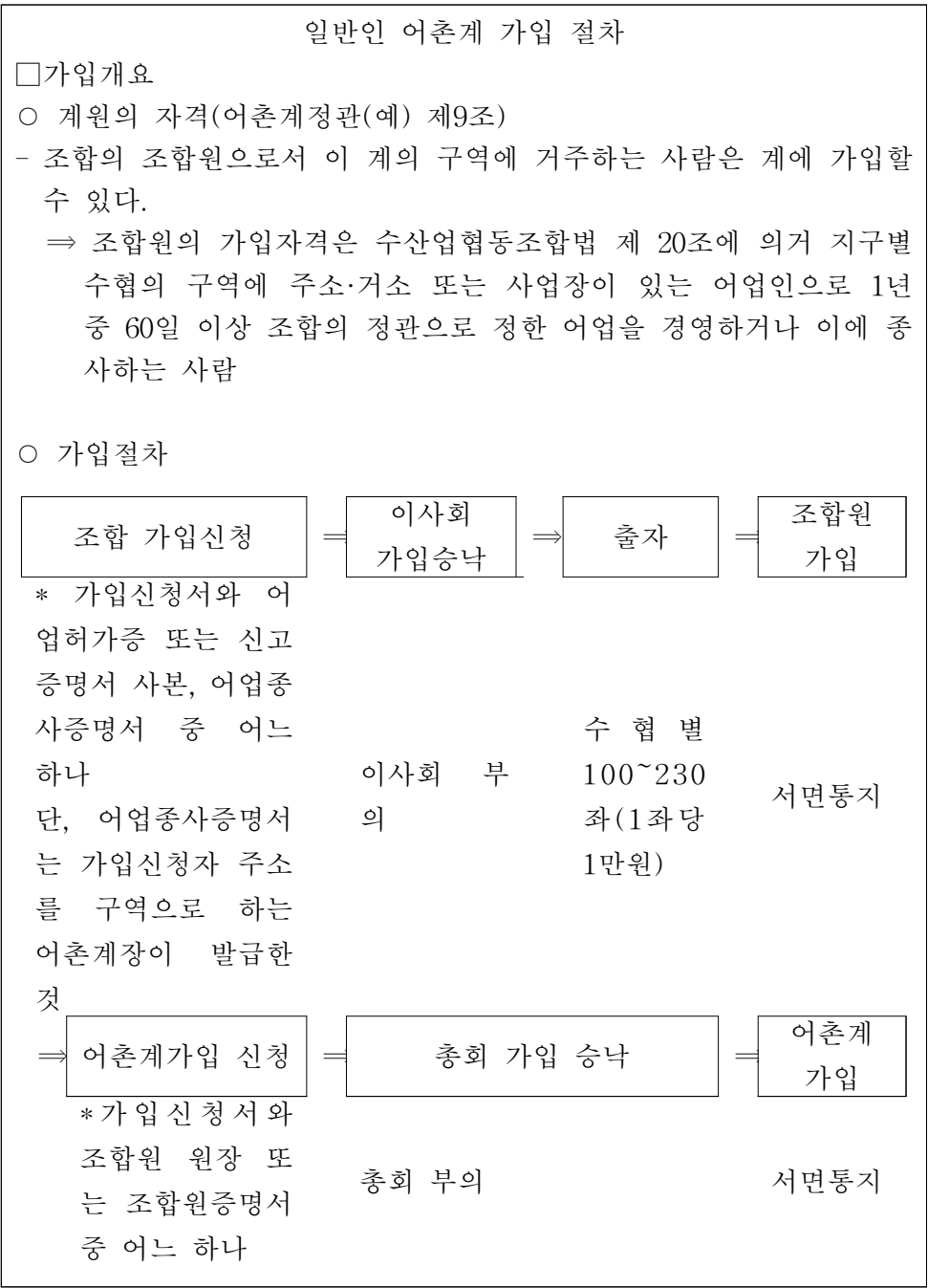
해녀학교는 해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해녀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 해녀, 즉 생계의 수단으로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학교에 입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학자들의 대다수들은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해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사리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7명의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한 명만이 직업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학교에 지원하였다.

B: 해녀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벽이 많아요. 방송에서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해녀를 뽑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선불리 다가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녀학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원할 때에 작성하는 지원서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어느 정도 힘이 드러나 예상은 했으나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니 진짜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학교에 입학한 연구 참여자를 실망시킨 해녀가 되는 과정은 <표 11>과 같이 매우 까다롭다.



<표 11> 제주해녀 관련법과 조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8b)

일반인이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겪어야 한다. 우선 가입 조건은 “수산업협동 제20조에 의거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으로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어촌계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고 어촌과 관련된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혹은 1년 채취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야함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협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조합비를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협별 100~230좌(1좌당 1만원)”에 해당한다. 이후 총회의 가입승낙 여부에 따라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 2) 그 외 동기

한명의 연구 참여자 외는 해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해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 직업적으로 해녀가 되기 위해서 입학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주에 오래 살다보니까 해녀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주도민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아야 하기도 하고 지역 해녀들이 찬성해야만 해녀가 된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해녀학교가 아니라 해녀학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해녀학교에 입학하기도 힘들고 경쟁률도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직업해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개개인의 레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그 결과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박성수와 이진숙, 2018) 이러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분위기가 해녀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했다. 실제로 해양 레저 스포츠 가운데 최근 각광 받는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오로지 맨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해녀들이 사용하는 잠수기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리다이빙은 1일 체험을 하거나 프리다이빙 관련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해녀학교는 시설유지보수비를 제외하면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프리다이빙은 비교적 일회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해녀학교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기생들과 선후배들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해녀학교 학생들은 제주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해녀학교에 입학하였다. 김인성 외(2017)에 따르면 제주 이주자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정착기간을 고려하면 정착기간 3-4년 미만 이주자들의 이주적응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문화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자연환경 영유 등의 이유로 이주정착기간 3-4년 미만 이주자들이 이주적응도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고자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D: 해녀학교를 입학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예요. 외부에서 제주로 들어온 사람은 이곳에 연고가 없어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사람들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수폴 해녀학교 입학자 55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 제주도로 입도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이사 온 토박이 한명 이외에는 입도한 기간이 최대 3년이었고 그 외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제주도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는 앞서 제시했듯 이주정착기간 3-5년 미만 이주자들이 사회 연결망 구축을 위해 제주 해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제주에서는 제주 외의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이주민으로서 제주에 정착하고 동화되기 위해서 제주내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였고 제주 해녀학교가 이러한 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배움의 형성

### 1.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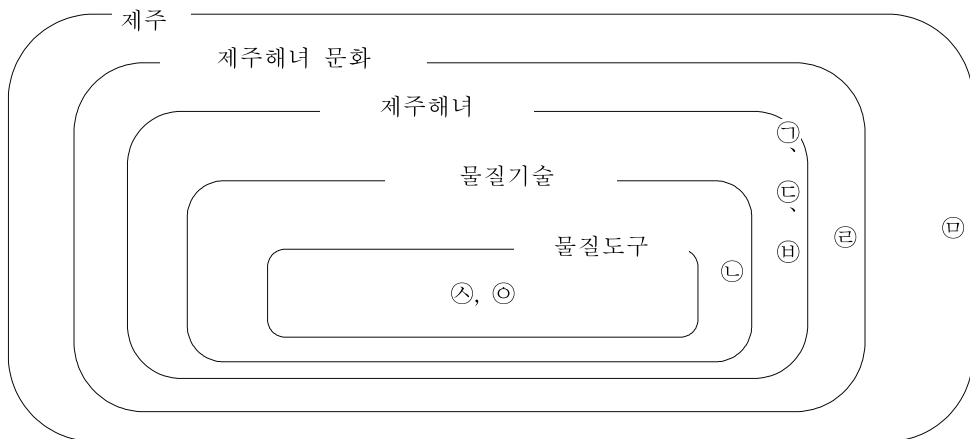
제11회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은 2018년 5월 26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총 15회로 이루어졌다. <표 12>와 같이 이론수업은 해녀이야기 외 7가지 주제로 9주에 걸쳐서 시행되었고 회마다 약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기수업은 날씨의 영향으로 15회 중 12회, 탈의 시간을 제외하고 약 두 시간 정도 시행되었다.

<표 12>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과정

날짜	이론	실습	장소
180526	입학식		①, ⑤
	X	X	
180602	㉠ 해녀이야기(귀덕리 해녀회장)	O	①, ②, ③
180609	㉡ 잠수이론/호흡법	O	①, ②, ③
180616	㉢ 해녀 질병과 원인 및 예방법	X	①
180623	㉣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주해녀	O	①, ②, ③
180630	㉤ fun fun 제주어 수업	O	①, ②, ③
180707	㉥ 해녀부부이야기	X	①
	㉦ 테왁만들기		
180714	X	O	②, ③
180721	㉧ 소중이 <sup>4)</sup> 만들기	O	①, ②, ③
180728	해녀학교 축제		①, ②, ③, ④
	X	O	
180804	X	O	②, ③
180811	비양도 소풍		비양도
	X	O	
180818	㉨ 테왁만들기	O	①, ②, ③
180825	X	O	②, ③
180901	졸업식		①, ②, ③, ⑤
	X	O	

## 1) 이론 수업

이론 수업 제재 분석 결과, 제주 해녀학교 이론 수업은 <그림 6>과 같이 ‘해녀 물질도구, 해녀 물질 기술, 제주해녀, 제주해녀 문화, 제주’라는 상·하위 포함관계로 구성되는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물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론 수업은 한 번에 그친 것에 반해 제주해녀의 삶이나 질병 등 제주해녀 그 자체에 대한 수업은 3회, 더 나아가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수업 1회, 심지어 제주어와 같은 제주와 관한 수업 또한 포함되었다. 이는 해녀학교 측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도외에서 오거나 이주정착이 짧은 도민인 것을 인식하고 제주해녀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이론 수업 주제 분석

## 2) 행사

### (1) 입학식 및 졸업식

2018년 5월 26일 입학식과 2018년 9월 1일 졸업식 모두 귀덕 2리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한수풀 해녀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귀덕 2리 주민

4) 지금의 해녀 의복인 고무복이 개발하기 전에 입던 옛 해녀 의복을 말한다.

들이 함께 모여 식에 참여하고 국수나 돔베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종의 마을 행사라고 보여 진다. 애국가 제창, 교장 선생님 축사, 상장 수여 등 식의 과정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 (2) 해녀학교 축제

2018년 7월 28일 한수폴 해녀학교 축제는 크게 바다청소, 장터, 무대로 구성되었다. 우선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그 양을 조별로 경쟁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성게들이기 작업을 통해 귀덕리 해녀삼춘들을 도와 주기도 했다. 실기수업을 했던 학교 바로 앞 바닷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바다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문 스킨스쿠버의 도움을 얻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장터에서는 잡은 빨소라 껍질 안에 심은 다육이를 판매하거나 직접 재배한 유기농 제주청귤에이드, 그리고 소떡소떡 등 여러 음식들을 판매하였다. 무대에서는 외부인을 제외하여 무대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조별 장기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수업시간 때 직접 만든 소중이를 입고 패션쇼를 하였다.

## (3) 비양도 소풍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라는 섬으로 처음으로 전교생이 원정 물질을 갔다. 전교생이 함께 처음으로 학교 앞 바닷가 아닌 타바당 체험이라는 점과 졸업한 선배기수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지역 해녀들과 어촌계의 허락이 요구되며 해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풍 장소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비교적 거리가 먼 가파도에서 타바당 체험을 하였다.

## 2. 물질

### 1) 물질기술

물질은 실습에서 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거나 바다 수영 경험이 전무한 사람부터 프리다이빙과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해녀학교 학생들의 물질 기량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다. 물질 초보자들을 위해 두 번째 이론 수업에서 한국 최초 프리다이빙 강사를 초청하여 잠수법과 호흡법 등에 대한 수업이 있었다.

실습 때에는 물질 수준별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녀 삼촌 당 조별 학생들로 모여 물질을 체득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 실력이 낮은 학생들을 따로 선별하여 해녀 회장님께 따로 특별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G: 나는 따로 해녀회장님한테 특훈 받았어. 세 번의 특훈. 원래 수영을 못했고 물이 무서웠어. 해녀회장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줬어. 처음에는 돌 하나를 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내놓는 것처럼.. 나는 돌이 하나를 바다 밑에까지 내놓아야겠다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개를 숙이고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해녀회장님이 한꺼번에 힘써서 그냥 들어가라고. 그리고 다리가 들어 가야한다고. 밖에서 다리를 파닥파닥 거리지 말고. 몸이 좀 들어가고 난 뒤에야 다리를 움직이라고 가르쳐줬어. 잠수하는 방법을 위주로 가르쳐줬지.

해녀회장님의 특훈이 있는 그룹이 있긴 하였지만 해녀삼촌들의 사투리로 인한 언어소통 문제, 해녀삼촌들이 자연적으로 체화한 물질기술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물질 수준의 학생들이 물질을 짧은 시간 내에 성장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각 조마다 프리다이빙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해녀삼촌들과 협업하여 조별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하기도 하였고 서로의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유튜브, 참고서적 등 물질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

하기도 하였다.

물때에 따라 학교 앞 바당 바당 깊이는 다르지만 보통 해녀학교 앞 바당 속 수심 약 4m 지점에는 해녀상이 있다. 물질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4m 가량을 잠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보 해녀학교 학생들은 잠수를 하여 해녀상을 만져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바다 속 해녀상을 만지면 해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선배로부터 전해져오기도 한다. 빨소라를 일부러 해녀상 위에 두고 해녀상 머리 위에 있는 빨소라를 들고 오는 미션을 학생들에게 주어 학생들의 물질 동기부여를 하는 해녀삼춘들도 있었다. 한 학생이 해녀상 머리 위에 놓인 빨소라를 가지고 올라오면 나머지 조원들은 환호와 격려를 해주고 다른 학생 역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다.

즉, 해녀학교 앞 바당 속 해녀상은 단순한 해녀의 모습을 나타내는상이 아닌 해녀학교 학생들의 목표 지점이자 물질기술을 높이는 원동력, 그리고 해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추억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학교 앞 바당 속 해녀상: 머리 위에 올려진 소라



## 2) 물질 도구와 결과물

물질을 할 때에 필요한 물질 도구는 고무옷, 수경, 스노클, 오리발, 장갑, 테왁, 멍이, 낚 등이 있다. 이 중 해녀학교에서 대여가 되는 것은 고무옷, 테왁, 그리고 낚이 있고 그 외에는 해녀학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 프리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비슷하지만 테왁, 호맹이는 해녀들만 사용하는 물질 도구이다. 테왁은 위에는 큰 원형의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초록색 끈인 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질을 하다가 위로 올라 테왁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고 물 밖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으로부터 예방하기 쉽다. 호맹이는 얇은 낫과 같이 생겼고 손을 잡는 부분은 나무로 처리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돌 틈 속에 숨은 성게나 빨소라를 쉽게 딸 수 있다. 호맹이는 제주 오일장과 같은 시장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물질을 하면서 수확하는 해산물을 ‘물건’이라고 칭하는데 가장 많이 채취하는 순으로 보말, 빨소라, 성게, 그리고 문어 등등이 있다. 보말은 제주도에서 고등으로 부르는 것이며 맛과 모양에 따라 제주도 보말의 종류가 다양하다. 수두리 보말, 먹보말, 촌고메기, 매옹이 등 물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곳이 다르고 매운 맛이 나거나 쓴 맛이 나는 것도 있다. 해녀들이나 해녀학교 학생들이 채취하는 것은 보통 표준어로 팽이고등인 ‘수두리 보말’이며 가장 깊은 물속에 살고 맛이 좋다.

다음으로 많이 채취하는 것은 빨소라와 성게이다. 해녀학교 다니는 기간 중 7~8월은 빨소라와 성게 산란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채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녀삼촌들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일부러 몇 개의 소라를 바당밭에 뿌려 놓고 학생들이 잠수하여 그것을 따는 연습하기도 하였다. 채취된 빨소라와 성게는 대부분 다시 방생하였다. 그 외에도 돌문어를 종종 잡는 학생들이 있었다. 특히 2018년 8월 중순 태풍 솔릭이 지난 후 학교 앞 바당에 돌문어가 많이 잡혔다.

## 제 3 절 배움의 결실

### 1. 해녀학교 학생들의 전통생태지식

#### 1) 빨소라 금채기와 크기

해녀학교가 시행되는 시기는 빨소라 산란기로 금채기(6월~8월)와 맞물렸으며 만약 빨소라 채취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크기의 빨소라를 잡을 수 없다. 마을 공동어장을 지키기 위한 제주해녀의 관습과 지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전수되었다.

D: 소라 살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문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 지름 7cm이상은 채취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공동어장 같은 곳에 가면은 금채기랑 몇 cm이상 되어야 하는지 안내판에서도 봤고 샤워장하고 옷 갈아 있는 데에 채취 시기란 이런 것들이 보드판 매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나오면 사무관이 “아 이걸 너무 조그마하다. 던져주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은 해녀학교 이론 수업이나 실기 수업에서 명확하게 지식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을어장 안내판, 샤워장 안내시판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습득하거나 실기장에서는 사무장의 말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이러한 전통생태지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말과 말로 전해졌는데,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작은 소라를 집어 올라오면 다른 학생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새끼네. 그냥 풀어줘. 원래 작은 건 잡으면 안 된대” 혹은 “지금 금채기라서 소라 잡으면 안 될걸?”라는 말을 함으로써 마을 어장의 생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작은 소라를 잡고 삶아 먹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인터뷰에 대답한 학생으로 보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대등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빨소라 위치

물질을 하는 데에 잠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학생들은 바다 밖에서의 해산물 모습만 보았지 해산물들이 바다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 따라서 잠수 기량이 높은 학생들이 늘 많은 양의 물건들을 수확하는 것은 아니었다.

C: 나는 사실 프리다이빙을 해서 해녀 삼촌들한테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잠수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요. 그런데 소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녀 삼촌들을 살펴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우리조가 좋았던 점이 여러 타바당체험을 한 점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마다 소라가 있는 곳이 달라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바위 틈 사이에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바위 밑에 있는 소라가 많아요. 사실 이걸 해녀 삼촌들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해녀 학생들은 해산물의 위치를 해녀삼촌들이나 학생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터득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여러 타바당 지역에 원정물질을 나감으로써 여러 해저지역을 스스로 체득하고 그에 맞는 물건들의 위치를 알아나갔다.

## 3) 성게 가시

물질 수업을 하면서 몇몇의 학생들이 장갑을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성게 가시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중 한 학생은 탈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빌려 바늘로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도중 해녀 삼촌 중 한명이 손가락에 박힌 성게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오줌 누면 돼~”라는 말했다. 이는 해녀 삼촌들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구전되는 것으로 실제로 소변 속 암모니아 성분이 성게가시를 녹이고 독소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 4) 쭈

물질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성가심은 수경에 생기는 김 서림이다. 물건을 따기 위해서는 물건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분별해야하는데 수경 안에 낀 김이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녀들의 전통 생태지식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D: 쭈는 해녀삼촌들이 처음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수경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니까 삼촌들이 쭈으로 하라고 해서 해녀학교 냉장고 안에 쭈을 뜯어다가 넣어줬어요. 다른 학생들이 넣어줬는가? 사용하니까 확실히 김이 덜 끼기는 해요. 다른 방법으로 안티포그, 그리고 침 등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 세 가지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대신 쭈은 이물질이 안경에 남아있어서 혹시 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해녀학교 냉장고에 쭈을 보관하고 해녀학교 학생들이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경에 끼는 김을 예방하는 용도로 쓰이는 쭈의 쓰임새가 자연스럽게 전수되었다. 또한 해녀삼촌들이 전수해주는 전통생태지식뿐만 아니라 “수경을 새로 샀을 때에는 유약제거를 위해서 치약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갖춘 학생들의 지식들도 함께 공유되었다.

<표 13> 전통생태지식의 종류와 출처

전통생태지식 출처	뿔소라 금채기·크기	뿔소라 위치	성게 가시	쭈
해녀삼촌		관찰	“오줌 누라”	냉장고
학생들	“작다. 버려”	타바당 체험	바늘	치약
관리자	감시, 확인			
공간	안내판, 샤워장			

<표 13>와 같이 해녀학교에서 생기는 전통생태지식은 비단 해녀삼촌들뿐만 아니라 해녀학교 학생들, 관리자, 그리고 심지어 학교 공간까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여 학습되고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해녀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문화

### 1) 불턱

불턱은 물질 전 물질도구를 채비하는 장소나 물질 후 물질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불턱의 역할을 탈의장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해녀학교 역시 위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 불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남들이 거의 없는 해녀사회에 비해 해녀학교에는 남학생들이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해녀학교 삼춘들과 해녀학교 학생들의 불턱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과 해녀 사회에서 하나 뿐인 불턱의 장소가 해녀학교에서는 여러 개 존재한다는 점이 <표 15>와 같이 다르다.

우선, 해녀 학교 학생들의 불턱은 학교 앞 바당 바로 앞에 있는 정자 혹은 이론수업을 하는 해녀학교 2층 교실 옆 테라스이다. 보통 물질 바로 전 정자에서 물질도구를 두고 준비체조를 한다. 준비체조 이후 이곳에서 스노쿨이나 수경을 착용하고 물질을 시작한다. 물질이 끝나고 난 뒤 비파, 감귤, 보리빵 등 제주 특산물이나 컵라면, 어묵 탕 등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는다. 더불어 실기 시간 때에 채취한 소라나 문어들을 함께 삶아 먹거나 뒷풀이로 바비큐 장소로도 활용한다. 그날 배웠던 물질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하거나 학교 축제나 해녀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운영 구성 방법에 대한 회의도 이루어진다.

해녀 삼춘들의 불턱 장소는 학생들과 다르다. 삼춘들은 탈의실과 보다가까운 곳에 불턱이 있으며 이곳에서 물질도구를 채비하고 그들만의 정보, 그리고 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누어진다. 또한 재철 나물이나 과일 등을 말리는 장소로도 활용되어 해녀 삼춘들만의 독립된 친목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전처럼 불턱에서 물질 이후 차가워진 몸을 녹이는 장소로 이루어지는 않지만 친목도모나 물질 정보교류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같이 하는 장소가 존재하고 그 장소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표 14> 해녀사회와 해녀학교의 불턱 비교

	해녀사회의 불턱	해녀학교의 불턱	
대상	해녀	해녀학교 학생	해녀 삼촌 (교사)
장소	불턱->탈의실	정자/ 2층 테라스	탈의실 옆
시간	물질 전/후		
기능	① 물질도구 채비 ② 물질정보 교류	① 물질도구 채비 ② 물질정보 교류 ③ 해녀학교운영회의 ④ 간식/ 뒷풀이	① 물질도구 채비 ② 물질정보 교류 ③ 수업 준비

<표 15> 해녀삼촌들과 학생들의 불턱 비교

해녀삼촌들의 불턱	해녀학교 학생들의 불턱
	
	

## 2) 공동체 의식

물질작업은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해녀들에게 동료들은 물 속 물건들을 수확하는 경쟁자임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인 셈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8a). 이러한 동료 해녀에 대한 배려는 해녀학생들도 물질을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

G: 졸업여행 같이 갔었잖아. 나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언니들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 ○○언니가 에이스니까 날 봐주잖아. 그때 우리 같이 서로 짝을 지어서 같이 들어가더라고. 처음에는 바다 속이 되게 깊고 캄캄해서 안보였어.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생겼고. 그때 △△ 언니가 일단 여기 붙고 쉬라고 했어. 그때 얼마나 안도감이 생기고 고맙던지. 쉬고 나니까 다시 나아졌어. 덕분에 다른 쪽 편에 햇빛이 들어와 물 속에서 보이는 예쁜 풍경도 즐겼어. 이때 같이 의지하는 것을 배웠지. 공동체 정신이라고 해야 하나? 혼자서는 절대 못하지.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림 8> 공동체의식: 파트너 정하기

바다 속은 언제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정하여 주기적인 체크를 하며 물질을 하면 서로에게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보다 더 안전한 물질을 즐길 수 있었다.

5) 1~8은 물질능력이 높은 순서이다. 물질능력은 해녀학교 실기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졌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물질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음 순으로 파트너를 자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특히 타바당 체험인 원정물질<sup>6)</sup>을 하러 갔을 때에 더 잘 관찰되었다. 원정 물질은 보통 토요일 수업 다음날인 일요일에 약 6-8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원정 물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공동체 의식은 첫째, 물질기량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물질 기술이 우수한 학생은 먼저 타바당에 잠수하여 해저지형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다. 그 다음 물질 기량이 뛰어난 학생이 잠수를 하고 마지막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무리를 지어 기다려주며 <그림 8>과 같이 파트너를 정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리고 물질을 하는 도중 체력이 약한 학생은 물질을 하면서 수확한 물건들을 받아 먼저 밖에 나가서 물질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은 수확한 물건들을 능력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물질의 능력과 기술에 따라 수확하는 물건의 양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수확물을 학생들은 늘 동등하게 수확량을 배분하였으며 때로는 학생의 가족 수나 희망하는 양을 배려하여 물건들을 나누었다.

---

6) 원정 물질을 시작한 계기는 전날 토요일 수업을 복습도 하고 타바당을 체험하여 타바당의 지형을 알고 물건들을 수확하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파도나 태풍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번 뿐인 실기 수업이 취소되는 아쉬움과 주말에 육지에서 제주로 오는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대한 상쇄시키는 데에 있었다.

원정물질을 위한 장소는 제주시 함덕, 광지, 판포 등 다양하였으며 제주도청 공식 문서를 이용하여 개방어장을 찾거나 선배들로부터 물건들이 많은 장소를 추천받기도 하였고 날마다 물때와 파도를 살펴 원정 장소를 정하였다.



## 제 4 장 논의 및 결론

### 제 1 절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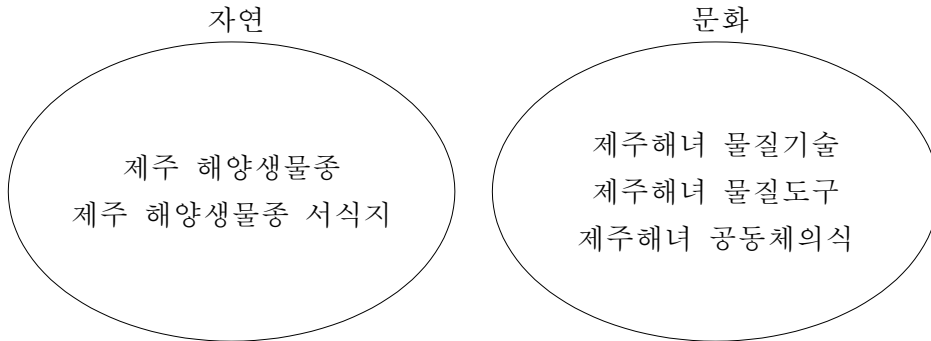
#### 1. 제주 해녀학교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 가치

제주 해녀학교는 제주해녀가 가진 생물문화다양성을 보존 및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 해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만의 전통생태지식이 학습 대상과 학습 내용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전통생태지식은 특정 장소 내에서 소수의 ‘언어’로 전달된다는 특징 때문에 경험의 멸종(extinction of experience)이 일어나기도 하고, 보편적 언어로 쉽게 전환되기도 힘들다(Maffi, 2001). 같은 맥락으로 제주해녀 역시 동일 어촌계 내의 제주해녀 사이에서만 제주 사투리로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들의 고령화 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그들이 가진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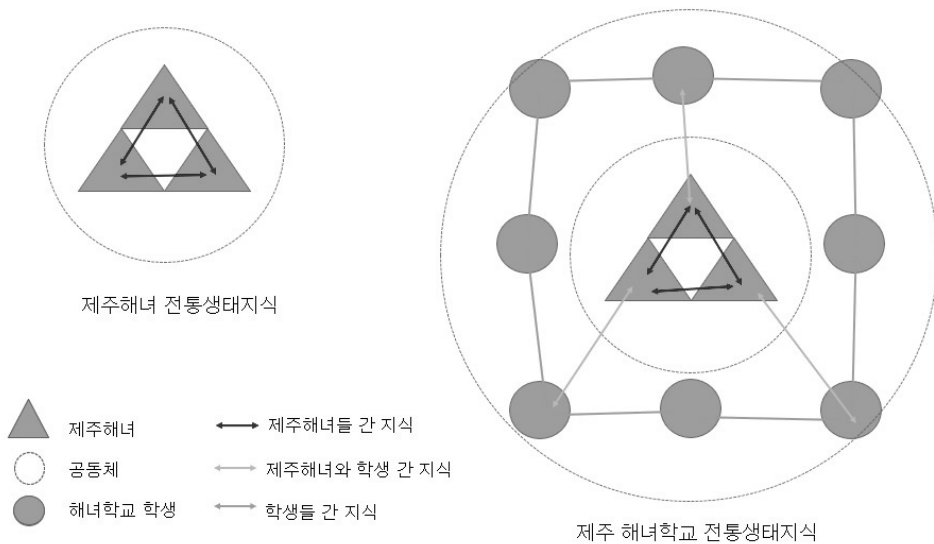
그러나 제주 해녀학교는 학교라는 장을 형성하여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만 전달되는 제주해녀만의 전통생태지식을 제주해녀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학생들과 이주민, 그리고 육지인에게 전달하게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고령 제주해녀들이 사용하는 제주 사투리 등의 문제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지식과 문화를 관리자와 전문 강사를 통해 정제된 언어로 교육하고 있다.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그림 9>와 같이 자신들만의 전통생태지식을 만들어냈다. 직접 제주 바닷가를 체험함으로써 제주 해양생물종과 관련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체득하였고 해녀학교의 이론과 실기수업을 통해 물질기술, 물질도구,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과 관련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림 9> 제주 해녀학교에서 학습된 전통생태지식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은 해녀학교 이론·실기수업을 통해 제주해녀 전통생태지식을 그대로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류의 대상과 지식내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해녀만의 전통생태지식은 교류의 대상이 <그림 10>과 같이 확대되었다. 기존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던 전통생태지식은 제주해녀와 학생 사이에서,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모두 쌍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제주 해녀학교 전통생태지식 공유 과정

더불어 해녀학교를 통해 제주해녀 전통생태지식 내용 또한 확대, 재생산되었다. 예를 들어 제주해녀의 물질기술에 더하여 해녀학교에서 초빙된 전문 프리다이버의 호흡법과 잠수법 강의로 더 체계적인 물질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때와 파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 등의 정보를 교환되어 전통생태지식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마트 위치를 활용하여 바당밭의 수심을 측정하기도 하였고 고프로와 같은 영상기계로 수중 촬영을 하는 등 기존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도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물질 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해녀 학교 선·후배 간의 지속적인 교류, 파트너를 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확인 등 제주해녀의 공동체의식을 재생산하는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제주해녀만이 가지던 고유한 전통생태지식을 보존하고 심지어 교류 대상과 내용을 확대시키는 제주 해녀학교의 기능은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학교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녀학교라는 장을 통해 제주 해녀의 문화와 제주의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진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생태학적 복잡적응체계내에서 상호진화”하는 Maffi(2010)의 생물문화다양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 2. 정치생태학적 커먼즈 ‘제주 바당’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해녀학교 통해 ‘제주 바당’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제주 바당을 정치생태학적으로 바라보는 커먼즈(communs)로 여기게 된 것이다.

커먼즈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토지, 물, 햇빛, 공기 등의 자연 자원과 저수지, 수로 등의 인공시설 등을 말하고(최현과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 2016)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자연자원과 이를 이용한 인간 집단 간의 협력적 제도를 뜻하기도 한다(정영신, 2017).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커먼즈를 주로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등의 용어로 혼용하지만(최현, 2013) 이 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커먼즈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Hardin(1968)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론에서 커먼즈를 목장에 비유함으로써 각 개인이 최대 이익만 추구하여 결국 무임승차 때문에 커먼즈는 파멸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Ostrom(1990)은 공유지의 비극은 지역 이해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조정 사례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배제성과 감소성으로 공동자원을 해석하고 여러 현장사례들로부터 이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원리를 추출하였다. Ostrom에 더 나아가 정영신(2016)은 보다 정치생태학적으로 커먼즈에 접근한다. 커먼즈를 “공동의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자원과 공간”으로 정의하여 이를 사회생태계 일부로 바라보고, 이들의 생태적 생활양식과 ‘공동의 것’을 생산하는 과정과 실천(commoning)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는 자신들의 커먼즈인 ‘바당밭’을 지키기 위해 정영신(2016)의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해녀들에게서 자연 환경에 대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발견되었고 이러한 주인의식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권호와 권상철, 2016). 여기서 ‘우리 모두의 것’이란 ① 경계가 있는 ‘우리’라는 의미와 ② 제한이 없는 ‘모두’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정영신, 2016), 제주해녀는 커먼즈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커먼즈를 공동의 것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녀학교 학생 역시 제주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커먼즈 ‘제주 바당’에 대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 나는 사실은 해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니 바다는 모두의 것인데 왜 바다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있거든. 그랬는데 우리 수업 때 제주 환경에 대해 한번 들었는데.. 제주도에 점점 이제 물건들도 없어지고 점점 오염이 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수질도 막 구분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해산물 애기씨를 뿌리잖아.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약간 자산의 개념이겠구나 싶어서 사실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해가 좀 더 커졌던 거 같아.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어.

연구 참여자 E는 제주 해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제주 바다라는 커먼즈에 대해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어장에서 바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녀학교 입학 후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주해녀” 이론 수업을 통해 제주 해양 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해녀삼촌들이 해산물 애기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주해녀와 어촌계들이 마을어장을 지정하여 외부인들의 어획을 제재하고 관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E: 사실 그거를 우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 어장 안내 표시에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설명되어있지 않나 싶어. 그냥 마을의 자산이라고만 되어 있잖아. 도대체 왜 이게 마을의 자산이라는 것이지. 왜 바다 땅까지 ‘자기네 꺼’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나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를 해소할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

뿐만 아니라 제주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 바당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이뿐만 아니라 제주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야하는 필요성까지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 16>과 같이 제주해녀들과 해녀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주해녀들은 제주 바당에 대해 ‘모두’보다 ‘우리’에 더 초점을 두어, 어촌계마다 경계를 지어 어촌계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업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제주 해양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다(김권호와 권상철, 2016).

이에 반해 해녀학교 학생들은 ‘우리’보다 ‘모두’에 더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해녀학교 학생들은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바다 경계와 소유의 개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주 해녀학교 여러 수업들로 배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주 해녀학교 졸업생이라는 공동체적 소속감으로 제주 해양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커먼즈 ‘제주 바당’에 대한 인식

	제주해녀	제주 해녀학교 학생
커먼즈에 대한 인식	‘우리’ 모두의 것	우리 ‘모두’의 것
환경에 대한 책임감 요인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 어촌계로 구분된 마을어장	제주 해양오염의 문제인식 해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공동체적 소속감

## 제 2 절 결론

이 연구는 제주 해녀학교 생활 세계에 직접 들어가 해녀학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어떠한 배움을 얻는지 밝혀 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문서자료 수집을 통하여 배움의 발판, 배움의 형성 그리고 배움의 결실 등 세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배움의 발판에서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의 배움의 장과 배움의 동기를 구성하였다. 배움의 장에서는 해녀학교의 위치와 장소의 역할 구분, 그리고 해녀학교 구성원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배움의 동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입학동기를 분석하여 직업해녀가 되기까지의 어려움, 직업해녀 외의 다른 동기들, 그리고 이러한 동기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까지 살펴보았다.

둘째, 배움의 형성에서는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의 커리큘럼을 전체 분석하고 크게 이론, 실기, 그리고 행사로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였다. 그 후, 이론 수업의 주제를 분석하고 실기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물질을 기술, 도구, 그리고 결과물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주해녀가 지니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배움을 배움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채취물의 크기나 장소 등 해녀들만 할 수 있는 전통생태 지식과 불턱,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파트너 만들기 등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알아보았다.

흥미롭게도 해녀학교 졸업생들은 해녀학교 수업 외 원정물질을 통해, 축적된 배움을 체화하고 적용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어획이 허용되는 마을 개방 어장에서 물질을 하거나 채취물의 크기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방생하는 등 개인의 욕심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전통생태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속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물질능력별로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수확물을 동등하게 나누고 그들만의 불턱에 물질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제주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고스란히 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에서 알 수 있는 환경교육 측면의 함의는 첫째, 제주 해녀학교는 제주해녀가 지니는 생물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확대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만 교류하던 제주해녀 전통생태지식은 학생들에게 전수되고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류됨으로써 학습대상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만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들까지 첨가되면서 제주해녀의 전통생태지식이 내용적 측면에서도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은 ‘제주 바당’을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 해녀학교 수업이 제주 해녀학교 학생들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더불어 제주해녀와는 다르게 ‘우리’라는 소유나 경계를 가진 커먼즈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의 ‘모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의를 통해 제주 해녀학교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알아보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파악된다. 우선, 제주 해녀학교의 이론수업이 지나치게 제주해녀의 문화다양성을 키우는 데에만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표 12>에 나타나있듯 대부분 제주해녀의 문화에 대한 이론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주 해양생물종이나 서식지 등과 같은 제주 해양이 가지는 자연의 가치를 다루는 이론수업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㉔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주해녀’ 수업에서만 제주 해양 오염실태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제주 해양오염으로 인한 제주해녀의 위기를 해녀학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해녀의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다루고, 제주해녀가 지니는 지속가능성과 제주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이론수업이 포함된다면 해녀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소양을 기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제주 해녀학교와 직업해녀의 연계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 해녀학교가 해녀 수의 감소와 고령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녀학교 설립 목적과 잘 부합하는지는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수풀 해녀학교 입문 양성반을 수료하고 졸업한다고 직업 해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해녀가 되는 과정은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제주 해녀학교에서도 인지하여 제주 한수풀 해녀학교가 2017년부터 직업 양성반을 생성하고 제주 법환 해녀학교가 해녀인턴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해녀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문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공동체 의식 결여 등의 해결책을 담은 전통생태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 해녀학교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은솔, 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  
술경영연구, 45, 317-341.
- 고창훈 (2005).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대한토목  
학회 학술대회, 3276-3286.
- 곽영순 (2014). 교사 그리고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권미선, 좌혜경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0),  
229-259.
- 김권호, 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 김민호 (2017).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방안. 교  
육문화연구, 23(4), 433-458.
- 김상미, 황경수 (2012).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0), 4557-4563.
- 김인성, 황경수, 오윤정 (2017).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  
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연구, 47(0),  
127-161.
- 김지수, 김은정, 유홍옥 (2016). 지역문화자원인 제주해녀주제의 탐구과정  
에서 유아가 경험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 아동교육, 25(4),  
161-185.
- 김억수, 이재영 (2016).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 토대로서의 생물문화다  
양성과 전통생태지식. 환경교육, 29(1), 15-35.
- 김현, 송미장 (2011).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서울:  
월드사이언스.
- 남미리 (2014). 속담을 통한 전통생태지식 수업이 초등학생의 유추적 사  
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윤숙 (2010). 제주 잠수 물질의 생태학적 측면: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물질’민속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 85-136.

- 민윤숙 (2011). 공존의 신념으로서의 제주 잠수들의 속신. 실천민속학연구, (18), 123-165.
- 박성수, 이진숙 (2018). 해양레저스포츠에서의 청소년여가경험 확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6), 23-32.
- 박준희, 차성원, 신소라, 김수정, 이주영 (2018). 제주 고령 해녀의 체온과 심박수 일내 변동.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5(3), 277-287.
- 방윤영 (2019). 에코웨딩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원섭 (2018).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통해 바라본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가치. 2018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 안나힐티 (2011).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지정: 무엇이 목적이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제주해녀의 재조명. 387-392
- 안미정 (2007).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151-197.
- 안미정 (2008). 제주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 유철인 (201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제주잠녀의 지속가능성.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1), 143-144.
- 장대수 (2011). 제주해녀의 재조명 해녀(발)의 지속 가능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과 해녀의 역할, 제주해녀학술심포지엄 자료 모음집. 제주해녀의 재조명. 353-355
- 정민희, 이용규 (2017).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양관광콘텐츠 연구. 한국도서연구, 29(1), 1-20.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정영신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로컬리티 인문학, (17), 119-163.
- 제주특별자치도 (2018a). 제주해녀 공동체를 엮는다 :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제주: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 제주특별자치도 (2018b). 해녀양성교재 : 제주해녀이해. 좌혜경 지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조미성 (2016). 에너지전환운동 모임의 형성과 학습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관악주민연대 절전소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좌혜경, 강정식 (2014).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 최현 (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경제와 사회, 12-39.
- 최현, 제주대학교Ssk연구단 (2016).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과천: 진인진. 25.
-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 홍선기 (2013). 섬의 생태적 정체성과 탈경계. 도서문화, 41, 329-349.
- Brush, S. B. (1996). Valuing local knowledge: indigenous peopl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Cocks, M. L., & Dold, A. P. (2006). Cultural significance of biodiversity: the role of medicinal plants in urban African cultural practices in the Eastern Cape, South Africa. Journal of Ethnobiology, 26(1), 60-82.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최욱, 김종백, 김민정, 김평국, 김한별, 김현진, 도승이, 문경숙, 박승현, 박용호, 박종원, 변호승, 손미, 손승현, 이명석, 이영민, 이호규, 임결, 임철일, 정종원, 진성미, 최희준, 홍원표 역 (2014). 질적 연구 핸드북.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Fetterman, D. M. (2009). Ethnography: Step-by-step (Vol. 17). Sage Publications.

- Fischer, F. (2000). Citizens, experts, and the environment The politics of local knowledge. Duke University Press.
- Gold, R. L. (1958). Roles in sociological field observations. *Social forces*, 217-223.
- Hardin, G.(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Journal of Natural Resources Policy Research*, 1(3), 243-253.
- Maffi, L. (2001). On biocultural diversity: Linking language,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 / edited by Luisa Maffi.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Maffi, L., & Woodley, E. (2010). Biocultural Diversity Conservation [electronic Resource] : A Global Sourcebook / Luisa Maffi and Ellen Woodley.
- Mascia, M. B., Brosius, J. P., Dobson, T. A., Forbes, B. C., Horowitz, L., McKean, M. A., & Turner, N. J. (2003). Conserv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Conservation biology*, 17(3), 649-650.
- Nelson, R. K. (1969). Hunters of the northern 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ey, D. A. (1988). The declaration of Belem. In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Ethnobiology.
- Posey, D., Dutfield, G., &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1996).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 Darrell A. Posey and Graham Dutfield.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Wadsworth Thomson Learning.

□ 웹사이트

법환좀녀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www.thehaenyeo-school.com/>

카카오 맵. <https://map.kakao.com/>

한수폴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jejuhaenyeo-school.com/>

## 부 록

<부록 1> 물질 도구 및 채취물

<부록 2> 학교 시설

<부록 3> 해녀학교 교육과정

<부록 1> 물질 도구 및 채취물



테왁과 슈트



수경과 스노클



오리발



호맹이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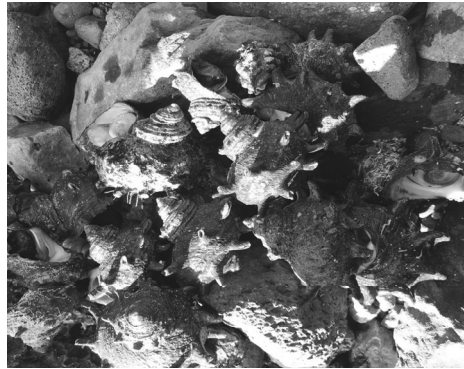


테왁





문어



빨소라

## <부록 2> 학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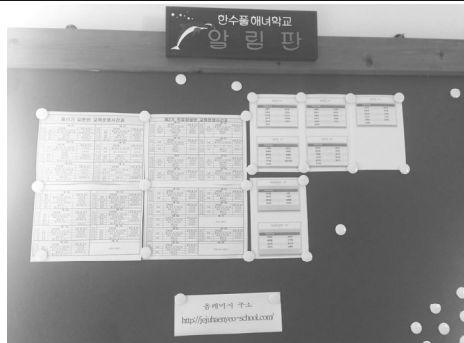
학교 건물



해녀 상



2층 학교 교실



교실 내 알림판



학교 앞바다



탈의실

### <부록 3> 해녀학교 교육과정



해녀 삼춘



퇴근하는 해녀 삼춘들



비양도 소풍



해녀학교 축제



해녀학교 축제2



해녀학교 축제3

# Abstract

## A Case Study

### on Learning

### in Jeju Haenyeo School

Inae 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Jeju Haenyeo school operates and how students learn. Therefore, the researchers entered the 11th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in 2018 to find ou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the motivation and learning of the students, and the environmental educational meaning of Jeju Hansupul Haenyeo School through a case study.

To do this, seven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using participation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document collection. I used research method to categorize subject matter according to attribute by repetitive reading and depicting research journals and research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and relational fields of the school and the motivation of students to enter

various fields are examined. Second, the fact that the curriculum of school is composed of theory, practice, and events in detail is confirmed. Third, students'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and community culture are found.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spect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ju Haenyeo School preserves and enhances biocultural diversity of Jeju Haenyeo. Second, I could see the recognition of Jeju Haenyeo School students as a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to the commons – 'Jeju sea'.

**keywords :** Jeju Haenyeo School, Jeju Haenyeo, bio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community, commons

***Student Number :*** 2017-21111